

산물 풍성하고 인심 후덕한 진천

강 욱 / 자유기고가

진천군(鎭川郡)은 충청북도의 중앙 서쪽을 차지하고 있는 군이다. 이 군의 동쪽으로는 괴산군과 음성군, 서쪽은 충남 천안시, 북쪽은 경기도 안성군과 접하고 있다. 진천의 서남부는 차령산맥으로 비교적 험준한 지형에 속한다. 그래서 총 면적의 60%를 임야가 차지한다. 반면 동북부에는 금강 상류인 미호천이 흐르고 있어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미호천은 아래쪽의 청원군으로 흘러내린 뒤에 충청남도 연기군까지 가서 금강과 합류한다. 미호천이 만들어 놓은 침식 분지를 중심으로 하여 진천군에 펼쳐져 있는 평야가 진천평야이다.

진천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경 쟁탈전이 계속되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또한 진천은 삼국통일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

한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가 바로 이곳 진천이기 때문이다. 진천은 고려 초기에는 왕건의 개국과 왕권 수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던 호족이 살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이거이, 신잡, 김덕승, 근대에는 이상설, 윤병한 등 많은 충신, 효자, 열사를 배출한 충효 예의 고장이다.

“진천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용인으로 간다.” 는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있다.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 진천은 온화한 기후로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이 풍성하며 자연 재난이 적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났다. 반면 용인은 산자수명하고 산세가 순수해 사대부가의 유명한 산소가 많다 하여 ‘사거용인(死去龍仁)’ ‘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단조롭기만 한 농업지역이었으나 오늘날 진천은 중부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산업체가 들어섬에 따라 농업과 공업이 함께 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천은 삼국통일을 달성한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김유신은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아들로 지금의 진천읍 상계리 계양마을에서 태어나 진평왕 31년에 화랑이 되었다. 낭비성(지금의 청주) 싸움에서 공을 세워 압량주 군수가 되었고 선덕여왕 때 상장군이 되었으며 무열왕 7년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진천읍 상계리에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 및 태실(사적 제414호)이 있으며 벽암리 도당산 아래에는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길상사가 있다. 김유신 장군은 신라 흥덕왕 때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어 탄생지인 도당산 아래 사우(祠宇)에서 봄 가을로 제향해 왔다. 그러나 사당은 조선조에 들어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병화로 무너졌다. 철종 2년(1851)에 백곡면 가죽동에 죽계사를 재건하여 백과 조감 선생과 같이 봉안하였다.

김유신 장군 사당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고종 원년(1864)에 죽계사가 헐리자 벽암리 소흘산 아래에 발

한 사당을 증건하여 제향 하였는데 1922년 대홍수로 사우가 다시 무너졌다. 그 후 1926년에 현 위치인 도당산성 안에 김만희의 주선으로 길상사를 재건하였다. 봄철 벚꽃이 아름다운 길상사 경내에는 홍무전, 사적비 등이 있으며 문화유적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천읍에서 청주 방향으로 12km를 가면 문백면 면소재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봉죽리에 정송강사가 있다. 조선 선조 때의 정치가이며 가사문학의 거장인 정철 송강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정철의 묘소, '사미인곡' 이 새겨진 시비, 신도비 등이 있고 32평 규모의 유물전시관이 있다. 전시관에는 송강이 명나라 사은사로 갔을 때 받은 옥배, 선조께서 친히 하사한 은배, 친필 서간문, 병풍, 족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정송강사는 전국 각지의 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진천에는 백제시대의 토기 가마터가 두 곳에서 발굴되었다. 덕산면 산수리의 도요지와 이월면 삼용리 백제 토기요지가 그곳이다. 산수리 도요지는 사적 제325호로 1987년 2월 한남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마을 뒤 야산 남쪽 경사면을 발굴하여 가마터 9기와 작업장 2곳을 확인하였다. 출

토 유물은 모두 물레로 성형된 토기들이며 회청색 경질토기, 적갈색 연질토기, 회백색 연질토기로 구분된다. 이 가마터는 대체로 4세기 무렵의 백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토기의 제작기술과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삼용리 백제 토기요지는 사적 제344호로 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때 역시 산수리 가마터를 발굴한 한남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규모는 9기의 산수리보다 작은 6기이지만 3세기 이전의 원삼국시대에 두드림무늬 토기를 생산하던 대형 요지군으로서, 도요지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수리 가마터의 토기 형식보다는 몇 단계 전 형식이고 청주 신봉동 토광묘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같은 형식이다.

문백면 구곡리에는 굴티부락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 특이한 양식의 옛 다리가 있는데 바로 ‘진천농교’ (농다리)이다. 지네모양을 본 따 28칸의 음양석으로 쌓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로 그 축조술이 뛰어나다. 이 다리는 전체 길이가 본디 100m를 넘었으나 현재는 28칸 가운데 24칸만 남아있다. 폭은 1m 남짓하지만 장마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토목공학의 이치를 이용한 것이다. 석재도 특이하여 각종 무늬돌을 사용하였다. 지방유형문화

재 제28호로 지정된 이 농다리는 김유신 장군이 낭비성을 침공할 때 구축하였다는 설과, 고려시대 무인으로 유명한 임연 장군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진천읍 연곡리 비림동에 위치한 석비는 진천군에서 유일하게 보물 제40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석비는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며 비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부터 글씨가 없었는지 아니면 새겨진 글씨를 지워 버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잘 다듬어진 비석과 비 갓에 새겨진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조각은 뛰어난 솜씨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이곳에는 석비와 관련된 3층 석탑과 좌불이 있고 통일 대탑이 있는 보탑사가 있다. 통일 대탑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염원하는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웠듯이 21세기를 앞두고 통일 한국 기원과 전통 목조 건축문화 재현을 위해 건립되었다. 통일 대탑은 현존하는 목탑 중 유일하게 3층까지 올라가는 세계 최대의 목탑으로 높이는 42.71m이다.

쌀은 진천이 내세우는 최고의 농작물이다. 진천군 전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비옥한 토지, 깨끗한 물, 그리고 벼 생육에 가장 적합한 일조량 등 천혜의 조건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고품질의 쌀로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진천 쌀은 1992년, 1996년, 1998년 3회에 걸쳐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대통령상과 대상을 수상했다.

진천에서 증평 쪽으로 9km, 청주에서 30km 지점인 초평면 화산리의 초평저수지는 전국에서 유명한 낚시터로서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초평저수지는 미호천 상류를 가로막은 영농저수지로서 저수량은 915만 톤이며, 저수지 둘레가 24km에 달한다. 이 저수지에는 잉어, 붕어, 뱀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낚시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초평저수지 근처의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초평 붕어찜’이 진천의 별미음식으로 유명하다. 붕어찜 요리는 들깨와 시래기, 무, 인삼으로 양념을 해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쫄깃한 수제비를 건져 먹는 것도 별미이다.

또한 진천군 덕산면에서 빚는 천년주도

특산품으로 손꼽힌다. 천년주는 인삼과 구기자, 음양곽 등 12가지 한약재와 누룩, 천연 생수로 만들어진다. 전통 민속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천년주는 70년의 전통으로 3대 째 가업을 잇고 있다.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장양리 일대에서 특화 작물로 재배되는 ‘진천 장미’도 이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꽃송이가 크고 색상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공이 굵고 튼튼할 뿐 아니라 짙은 향기를 지니고 있다. ‘진천 장미’는 국내 소비는 물론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아직도 깨끗한 청정자연을 지키고 있는 진천군은 천연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된 왜가리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이월면 노원리 들녘에는 철 따라 왜가리, 백로의 무리가 평화롭게 날아들고 있다. 또한 초평면 용정리에는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